

제 1 교 시



2014학년도 공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 국 어 영 역

A형

성명		수험번호							
----	--	------	--	--	--	--	--	--	--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공 군 사 관 학 교

공 란

[1 ~ 2] 다음은 학급 임원 3명이 한 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회장:** 체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번 학급 회의에서 체육대회 때 반 티셔츠를 맞추어 입자고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티셔츠에 들어갈 문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당장 결정해서 오늘이라도 주문해야하지 않을까요?

**남학생** :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티셔츠 문구에 관해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내일 수업 마친 후에 설문 조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여학생:** 물론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단 우리 임원들이 문구를 결정하고, 다음에 학급 친구들에게 동의를 얻도록 합시다.

남학생 : 체육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학생 :** 우리는 학급 친구들이 임명한 임원입니다. 이 말은 친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단순한 일은 우리가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남학생 :** 친구들이 우리를 임원으로 뽑은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뜻을 잘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쉽고 간단한 일도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도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학생:**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친구들 모두에게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체육대회 연습도 해야 하고, 응원 도구도 준비해야 합니다.

남학생: 지난 학기에 있었던 합창 대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임원들끼리 노래를 선정하고 합창에서의 역할도 우리끼리 결정하는 바람에 친구들의 원성이 높았고, 결국 대회장에서 우왕좌왕해 큰 망신을 당했잖아요.

**회장** : 티셔츠 문구도 빨리 결정해야 하고,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 설문 조사는 하면서, 언제라도 문구만 결정되면 곧바로 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고 티셔츠 제작 업체와 약속을 하도록 하죠.

여학생 : 그 방법이 좋겠네요.

남학생 : 저도 찬성합니다.

1. 회의 참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장 : 대립되는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남학생 :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남학생 : 과거의 경험을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 ④ 여학생 : 상대방이 한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⑤ 여학생 : 상대방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 회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체육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 ㄴ.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 ㄷ. 행사 진행에 관한 간단한 일은 임원들이 결정할 수 있다.
- ㄹ.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 친구들이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neg, \sqsupset$   
④  $\sqsubset, \sqsubset$                       ⑤  $\sqsubset, \sqsupset$

## 3. 다음의 대화에 나타난 ‘정민’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선: 내일 1학년 교실에 들어가 우리 동아리를 소개하기로 했는데, 준비는 잘 돼 가니?

정민: 준비하긴 했는데, 너무 떨려.

미선: 우리 동아리에 대해 소개할 내용은 뭐로 할 거니?

정민: 우리 동아리가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선후배 간에 사이가 좋다는 말을 할 거야.

미선: 그 정도면 됐네.

정민: 하지만 후배들 앞에 처음 나서는 거라 그런지 많이 긴장 돼.

미선: 그래? 너 평소에 조리 있게 말 잘 하잖아.

정민: 내일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떨리면 실수할 텐데......

- ① 후배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
- ② 준비를 많이 한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 봐.
- ③ 우리 동아리가 좋은 점이 많잖아. 그걸 소개해 봐.
- ④ 1학년이잖아. 후배들 앞에서 완벽한 선배 모습을 보여줘.
- ⑤ 실수하면 안 돼. 이번 동아리 소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지?

## [4 ~ 5] 다음은 두 학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인애: 새롭아, 요즘 정미, 화영이와 말도 잘 안하고, 만나지도 않는 것 같더라. 너희 삼총사 무슨 일 있니?

새롬: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실은 말이야..... (한숨을 쉬며) 아니야, 됐어.

인애: 웬 한숨이야? 뭔데? 괜찮아. 말해 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

새롬: 알았어. 실은 일이 좀 복잡해. 정미가 나에게만 털어 놓은 비밀이 있었는데, 내가 화영이에게 그 비밀을 말해 버린 거야. 바보같이......

인애: (새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새롬: 화영이가 그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직접 정미에게 그 비밀에 관해 물어 봤대.

인애: 아,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구나. 정미가 많이 화났겠네.

새롬: 맞아. 그래서 내가 사과했는데도 받아주지 않아서 많이 섭섭했어. 지금도 그렇고.

인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운했겠네! 그런데 뭐라고 사과했니?

새롬: 고의는 아니었지만 비밀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런데도 정미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

인애: 응, 그렇구나. 그런데 화영이하고는 왜 말을 안 하는 건데?

새롬: 내가 정미의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화영이에게 따지니까, 자기도 미안하기는 한데 그런 일 가지고 굳이 따지느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 소리를 버럭 질렀어. 내가 잘못된 거니?

인애: (손사래를 치며) 아냐, 아냐, 그렇지 않아. 나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화가 났을 거야.

새롬: 휴,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기는 하다. 그런데 정미와 화영이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인애: 정미의 경우는 정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화영이에게는 지난 화법 시간에 배운 ‘관용의 격률’에 따라 말해 보는 게 어때?

4. 위 대화에서 ‘인애’의 ‘공감적 듣기’ 태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공감적 듣기’ 태도의 평가표		
평가 준거	그렇다	아니다
•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는가?	✓	..... ①
•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는가?		✓ ..... ②
•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었는가?	✓	..... ③
•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였는가?	✓	..... ④
• 상대방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을 요약·정리하였는가?		✓ ..... ⑤

5. <보기>를 참고할 때, ‘인애’의 마지막 말에 대한 ‘새롬’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손한 표현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공손성의 원리’ 중에 ‘관용의 격률’은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 ① “화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② “나도 실수를 했고, 너도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③ “네가 정말로 나에게 사과하려했다면 그렇게 나에게 짜증을 내서는 안 됐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④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앞으로는 남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마.”라고 말하라는 거지?
- ⑤ “갑자기 내가 화를 내서 당황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라는 거지?

6. 다음은 글쓰기 과정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국어 선생님께서 요즈음 학생들의 관심사를 제재로 하여 설득하는 글을 쓰라는 과제를 내 주셨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를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막상 글을 쓰려니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민 끝에 친한 친구 3명을 불러 요즈음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 각자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이성 교제, 학교 폭력, 다이어트, 아이돌 열풍, 청소년 비만 등 다양한 글감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 요즘 내 주위에 비만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청소년 비만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하여 글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으로 글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다. 우선 글을 쓰기 위해 자료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최근 10년간 비만 청소년 현황, 고등학생의 1일 적정 운동량, 청소년 비만이 성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 다음에는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문제 제기-원인 분석-해결 방안-요약·제언’의 순서로 구성하고, 특히 결말 부분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초고를 완성한 후에는 글의 내용이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맞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복하여 고쳤다.

- ①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의를 한 후 주제를 정하였다.
- ②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 전개 순서를 정하였다.
- ③ 글의 내용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고쳤다.
- ④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 ⑤ 예상 독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글의 표현 방법을 선택하였다.

7. 다음은 공원 입구에 세워진 안내문이다. <보기>는 공원 곳곳에 게시할 공고문으로서 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안내


공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불법으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원 내에서 밥을 짓는 행위,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 애완동물의 목줄을 풀어 놓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상점 외의 곳에서 김밥,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공원관리사무소(☎123-4567)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공원관리소장


— < 보 기 > —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의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음식물 취사 

◎ 애완동물 관리 소홀 

◎ 허가 받지 않은 식품 판매 

이러한 행위를 보신 분은 공원관리사무소(☎123-456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

- ① 중요도에 따라 내용의 순서를 재배열해야겠어.
- ② 제목은 경어를 사용해 독자의 거부감을 줄여야겠어.
- ③ 중요한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생략해야겠어.
- ④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해야겠어.
- ⑤ 같은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을 포괄하는 말로 항목화해야겠어.

8. ‘악성 댓글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자기 점검을 해 보았다. 수정 및 보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I. 문제 제기**

- 가. 악성 댓글의 실태
- 나.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의 어려움

**II. 악성 댓글의 원인**

- 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
- 나. 정보 통신 윤리 의식 미흡
- 다. 인터넷 검색 능력 부족
- 라.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III. 악성 댓글 해소 방안**

- 가. 학교에서의 정보 통신 윤리 교육 강화
- 나.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체계 보완

**IV. 결론**

- ① ‘I-나’는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II’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한다.
- ② ‘II-다’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③ ‘II-라’는 ‘II-나’와 유사한 내용이므로 ‘II-나’에 포함시킨다.
- ④ ‘III’에는 ‘II-가’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게임 섯다운제 실시’를 추가한다.
- ⑤ ‘IV’에는 ‘올바른 댓글 문화 정립’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9. <보기>는 ‘건강과 스트레스’를 주제로 작성한 글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건강과 스트레스

— ㉠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성격 유형과 행동 특성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사람이 느끼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사람은 생리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스트레스와 정면으로 대립하거나 ㉡ 도피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는 그 요인에 대하여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반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스트레스는 고통스러울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에도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기쁨을 얻는다. 예를 들어 산악인이나 항해사들은 거친 자연 조건에서의 산행이나 항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룸으로써 성취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목표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에 ㉣ 순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이다.

- ① ㉠은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로 바꾼다.
- ② ㉡에는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스트레스로부터’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 ③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대응’으로 교체한다.
- ⑤ ㉤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런데’로 고친다.

10.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우리말에서 반의 관계의 종류는 ‘상보 반의’, ‘방향 반의’, ‘정도 반의’로 나눌 수 있다. ㉠ ‘상보 반의’는 ‘남자 : 여자’처럼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반의 관계이고, ‘방향 반의’는 ‘오다 : 가다’처럼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며, 마지막으로 ‘정도 반의’는 ‘차다 : 뜨겁다’처럼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반의 관계이다.

- ① 참 : 거짓
- ② 크다 : 작다
- ③ 왼쪽 : 오른쪽
- ④ 쉽다 : 어렵다
- ⑤ 오르다 : 내리다

11. <보기>는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사례이다. <보기>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혼자 ‘하늘’이라고 한다면 ‘땅’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 ① 언어의 규칙성
- ② 언어의 분절성
- ③ 언어의 사회성
- ④ 언어의 역사성
- ⑤ 언어의 창조성

12.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를 모두 고른 것은?

— < 보기 1 > —

우리말 합성어 중에는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의 형태 등은 우리말에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이므로 통사적 합성어라 부르고, ‘용언의 어간+명사’, ‘용언의 어간+용언’의 형태 등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어긋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 부른다.

— < 보기 2 > —

㉠ 굶주리다      ㉡ 기와집      ㉢ 덮밥      ㉣ 들어가다      ㉤ 작은집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부사어의 특성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ㄱ.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만났다.  
 ㄴ. 아주 큰 서점이 생겼다.  
 ㄷ.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ㄹ. 돌고래가 매우 빨리 따라오고 있었다.

- ① ㄱ의 ‘결국’을 보니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겠군.  
 ② ㄱ의 ‘여기서’를 보니 부사어는 문장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겠군.  
 ③ ㄴ의 ‘아주’를 보니 부사어가 관형어를 꾸며줄 수도 있겠군.  
 ④ ㄷ의 ‘며느리로’를 보니 부사어는 꾸미는 말이므로 생략할 수 있겠군.  
 ⑤ ㄹ의 ‘매우’를 보니 부사어가 부사어를 꾸며줄 수 있겠군.

14. <보기>는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우리말 음운 변동 중, 교체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변동 유형	설명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올 수 없는 자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유음화	‘ㄹ’에 인접한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
구개음화	형태소의 끝소리인 ‘ㄷ, ㅌ’이 ‘ㅣ’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와 만날 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① 논일
- ② 같이
- ③ 바깥
- ④ 믿는다
- ⑤ 물놀이

## [15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 중앙에 어떤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도우려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도움 행동(친사회적 행동)’이라 한다. 도움 행동은 순수하고 사심 없이 돕는 행동에서부터 이익 추구라는 계산적인 목적으로 돕는 행동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곤경에 처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도움 행동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 상황에서 제3자의 존재 여부는 도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 주위에 제3자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도움 행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제3자가 있을 때는 ‘내가 아니라도 [가] 다른 사람이 돕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돕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급한 상황이 아닌가봐.’ 하고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에 존재하는 제3자가 낯선 사람일 경우보다는 친한 사람일 경우에 도움 행동은 더 빨리, 더 잘 일어난다. 이는 사람들이 도움 행동을 할 때 제3자가 친한 사람일 경우 자신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현재 어떤 감정 및 동기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도 도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양심의 가책에 민감한 사람은 도움 행동을 통해 불쾌한 감정이나 압박감에서 ㉠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와준다. 그리고 ‘곤경에 처한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움 행동을 더 많이 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도움 행동이 더 쉽게 나타난다. 또한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도 도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진 경우와 일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에 도움 행동을 더 많이 한다.

— 한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 행동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간은 개인적 선택과 행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자유가 상실되지 않을까 [나] 하는 우려에서 도움을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겪는 곤경이 타인, 우연, 상황적인 압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 능력, 자질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도움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5.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의 내용과 그 범위를 소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논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16. [가]를 참고하여 <보기>의 실험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실험명 : 도움 행동 실험
- 실험 방법 : 설문지를 작성하는 중 누군가가 다급하게 비명을 지를 때, 피험자가 도움 행동에 나서는 비율, 도움 행동에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함.
- 피험자 그룹
  - A 그룹 : 피험자 1명.
  - B 그룹 : 피험자 1명, 실험 협력자 1명.
    - \* 실험 협력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태에 대하여 시종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함.
    - \* 피험자는 실험 협력자를 자신과 동일한 피험자로 인식하고 있음.
  - C 그룹 : 피험자 2명.(둘은 모르는 사이임.)
  - D 그룹 : 피험자 2명.(둘은 친구 사이임.)
- 실험 결과
  - ㄱ. 도움 행동에 나선 비율 : A 그룹 70%, B 그룹 7%, C 그룹 40%, D 그룹 70%
  - ㄴ. 도움 행동에 나서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 : C 그룹 130초, D 그룹 36초

- ① A 그룹에서 B 그룹보다 도움 행동이 잘 일어난 이유는 옆에 타인이 없었기 때문이겠군.
- ② B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도움 행동을 덜한 이유는 실험 협력자의 행동이 피험자의 상황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겠군.
- ③ B 그룹과 C 그룹의 결과로 보아 피험자에게 경제적 목적이 있을 때에 도움 행동이 더 잘 일어나겠군.
- ④ C 그룹은 D 그룹에 비해서 옆 사람의 평가를 덜 의식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군.
- ⑤ D 그룹에서 C 그룹보다 도움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은 옆에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군.

17. [나]를 바탕으로, 도움 행동에 나설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가까운 사람일 때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②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③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때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④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여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18.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네 행동은 예의에서 벗어난 거야.
- ②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③ 터널에서 벗어나자 시야가 밝아졌다.
- ④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자.
- ⑤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났다.

##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생활(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공적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이 있다.

㉠ 공적연금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연금은 가입자가 비용은 현재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의 욕구를 더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당장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젊은 시절에 노후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최저생계를 보장해준다. 이 경우 젊었을 때 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방만하게 생활한 사람들의 노후생계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연금 관리자의 입장과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각기 다르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만, 연금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적립방식’은 인구 구조가 변하더라도 국가는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받을 연금과 내는 보험료의 비율이 누구나 일정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 하지만 일정한 기금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므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 지급이 어렵다.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적립방식’과 달리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제도 도입과 동시에 연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인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되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금액과 지급 받을 연금액의 관계에 따라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방식은 가입자가 일정한 액수나 비율로 보험료를 낼 것만 정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의 액수는 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립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연금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이 손실 위험을 떠안게 된다. 또한 물가가 인상되는 경우 확정기여에 따른 적립금의 화폐가치가 감소되는 위험도 가입자가 감수해야 한다. 확정급여방식은 가입자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지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따라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다. 나중에 받을 연금을 미리 정하면 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의 실패는 연금 관리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손해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축을 하느라 적절한 소비를 하지 않으므로
- ②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 ③ 현재의 욕구를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므로
- ④ 미래의 편익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므로
- ⑤ 노후 대비를 국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 공적연금의 재원 충당 방식 중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목	적립방식	부과방식
①	연금 지급 재원	가입자가 적립한 기금	현재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
②	연금 지급 가능 시기	일정한 기금이 형성된 이후	제도 시작 즉시
③	세대 간 부담의 공평성	세대 간 공평성 미흡	세대 간 공평성 확보
④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 어려움	소득 재분배 가능
⑤	인구 변동 영향	받지 않음	받음

21.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상황에 대하여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회사는 이번에 공적연금 방식을 준용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회사는 직원들이 퇴직연금 방식을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확정기여방식은 부담금이 공평하게 나눠지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 ② 확정기여방식은 기금을 운용할 회사의 능력에 따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 ③ 확정기여방식은 기금의 이자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면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
- ④ 확정급여방식은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 ⑤ 확정급여방식은 투자 수익이 부실할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22. ㉠와 관련하여 맞춤법에 따른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율(規律)
- ② 선율(旋律)
- ③ 자급율(自給率)
- ④ 점유율(占有率)
- ⑤ 백분율(百分率)

##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속은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데, 물속에서의 음속은 공기에서보다 4 ~ 5배 빠르다. 물속의 음속은 수온과 수압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런데 해양에서 수압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지만 수온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온과 수압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의하여 음속이 결정된다.

음속의 변화를 주는 한 요인인 수온의 변화를 보면, 표층은 태양 에너지가 파도나 해류로 인해 섞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아래의 층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 어려워 수심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이보다 더 깊은 심층에서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표층과 심층 사이에 있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층을 수온약층이라 한다. 표층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높은 음속을 보인다. 그러다가 수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수온약층에서는 음속도 급격히 감소하다가 심층의 특정 수심에서 최소 음속에 이른다. ㉠ 그 후 음속은 점차 다시 증가한다.

수온약층은 위도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적도에서는 일 년 내내 해면에서 수심 150미터까지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그 이하부터 600미터까지는 수온약층이 형성된다. 중위도에서 여름철에는 수심 50미터에서 120미터까지 수온약층이 형성되지만, 겨울철에는 표층의 수온도 낮으므로 수온약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극지방은 표층도 깊은 수심과 마찬가지로 차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온약층이 거의 없다.

수온약층은 음속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음파를 휘게도 만든다. 소리는 파동이므로 바닷물의 밀도가 변하면 다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 일어난다. 수온약층에서는 음속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음파는 수온약층과 만나는 각도에 따라 위 혹은 아래로 굴절된다. 음파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층 쪽으로 굴절한다. 이런 굴절 때문에 해수면에서 음파를 보냈을 때 음파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구역이 형성되는데 이를 음영대 (shadow zone)라 한다.

높은 음속을 보이는 구간이 있다면 음속이 최소가 되는 구간도 있다. 음속이 최소가 되는 이 층을 음속최소층 또는 음파통로라고 부른다. 음파통로에서는 음속이 낮은 대신 소리의 전달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 층을 탈출하려는 바깥 방향의 음파가 속도가 높은 구역으로 진행하더라도 금방 음파통로 쪽으로 굴절된다. 음파통로에서는 음파가 위로 진행하면 아래로 굴절하려 하고, 아래로 진행하는 음파는 위로 다시 굴절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즉 음파는 속도가 낮은 층 쪽으로 굴절해서 그 층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층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수천 km 떨어진 곳에 서도 들린다.

해양에서의 음속 변화 특징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음영대를 이용해 잠수함이 음파탐지기로부터 회피하여 숨을 장소로 이동하거나, 음파통로를 이용해 인도양에서 음파를 일으켜 대서양을 돌아 태평양으로 퍼져나가게 한 후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를 관찰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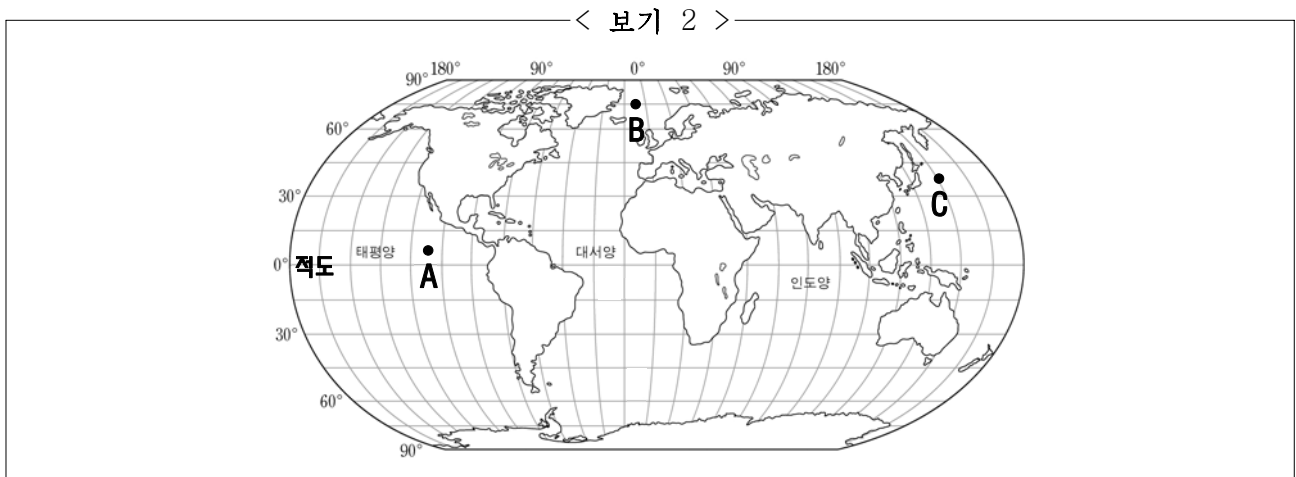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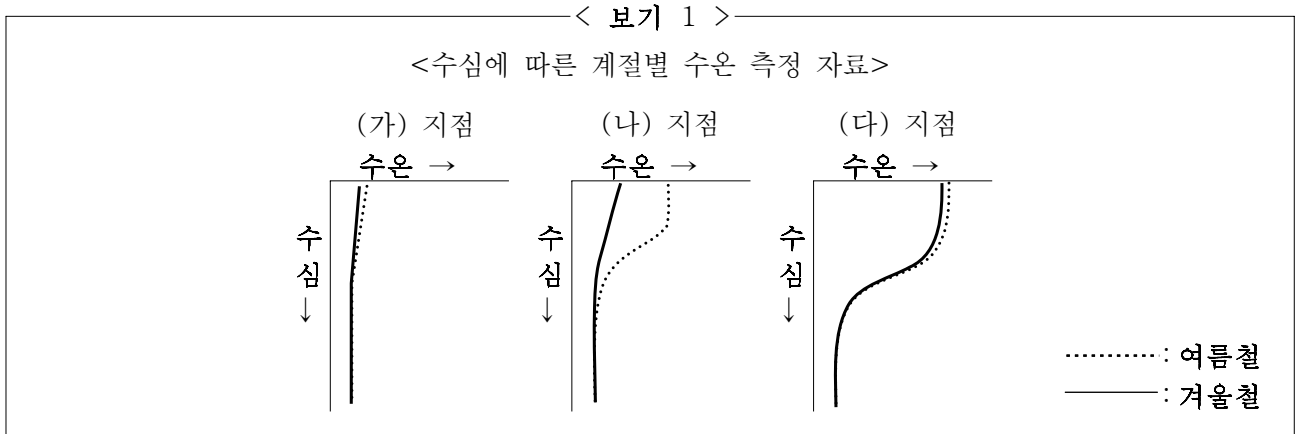
## 23. 윗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온이 일정한 구역에서는 수심이 증가할수록 음속도 증가할 것이다.
- ② 심층에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③ 수영장 물 밖에 있을 때보다 수영장에서 잠수해 있을 때 물 밖의 소리가 더 잘 들릴 것이다.
- ④ 음영대의 특성을 이용하면 잠수함은 적의 음파 탐지로부터 숨을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음속이 최소가 되는 층에서 발생한 소리는 멀리까지 들리므로 기후 연구 등에 이용될 것이다.

24. 밑글로 보아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온약층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 ② 압력이 증가할수록 수온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 ③ 밀도가 다른 해수층을 만나 음파가 굴절되기 때문이다.
- ④ 압력 증가의 효과가 수온 감소의 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 ⑤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수압과 수온 모두 상승하기 때문이다.

25. 밑글과 <보기 1>을 참고할 때, (가)~(다)의 측정 지점을 <보기 2>에서 바르게 추정한 것은? (3점)



	(가) 지점	(나) 지점	(다) 지점
①	A	B	C
②	A	C	B
③	B	A	C
④	B	C	A
⑤	C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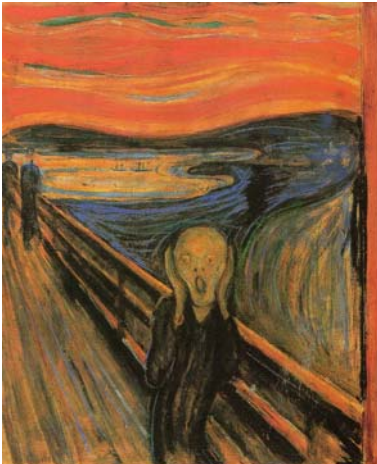
26. 문맥으로 보아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송(發送)한다                      ② 발행(發行)한다                      ③ 발족(發足)한다
- ④ 발생(發生)한다                      ⑤ 발호(發號)한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10년을 전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사조인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하여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술 운동이자, 회화에 사회의식을 반영한 사조로 평가 받는다. 19세기 후반 당시의 독일 사회는 전쟁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표현주의자들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초라한 인간상을 예리하게 ㉠ 포착하여 불안과 공포, 기쁨과 슬픔 등 자신이 느낀 것을 ㉡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다.

기존의 회화가 외적 세계의 모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표현주의자들은 외적 세계에 대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채의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였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이므로, 당시의 내면 상태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듯한 거친 붓놀림과 선에 의해 단순화된 형태, 그리고 과장된 색채를 ㉢ 선호하였다. 특히 표현주의자들은 판화를 많이 제작하였다. 작가들은 판화에서는 과장된 색채 대신 흑백 대조를 활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들을 이용하여 당시의 부정적인 사회 상황을 드러내려 하였다.



당대인들은 표현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왼쪽의 작품은 표현주의의 대표작인 뭉크의 「절규」이다. 이 작품이 베를린 전시장에 걸리자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해 비난을 하였고, 결국 이 전시장은 폐쇄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감상 방식에 얽매어 있었던 당대 사람들은 표현주의의 어둡고 무거운 주제와 일그러진 형태, 자연스럽지 못한 색감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표현주의는 감정과 이념을 표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입체적 구도의 균형이 주는 조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작가의 내면세계에 대한 메시지의 전달을 더욱 중시하였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각과 감정 상태를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주의는 전후의 혼란 속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지속되었으나 나치 정권으로부터 퇴폐 예술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으면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하지만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는 바깥 세계의 묘사에 갇혀 있었던 예술적 안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의 표현 영역으로 ㉣ 확장함으로써 현대 회화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 회화에서 작품의 재현적 가치보다 ㉤ 개성적 가치가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예술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 시도했던 표현주의의 실험 정신이 남겨 놓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27.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표현주의 미술의 주된 소재는 무엇인가?
- ② 표현주의 미술이 탄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③ 표현주의 미술에 영향을 준 미술 사조는 무엇인가?
- ④ 표현주의 미술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 ⑤ 표현주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표현주의 작가 콜비츠의 대표작인 「궁핍」이다. 이 작품은 실업과 사회적 붕괴가 잦았던 슐레지엔 지방 방직 공들이 당면한 비참한 처지를 다룬 석판화로서, 작가가 실제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지켜 본 후 괴로운 마음에서 창작한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이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독일의 황제가 주최하는 미술 대회에서 금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독일의 내각은 ‘작품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거나 달래주는 요소가 전혀 없는 기법을 사용했다.’라며 황제에게 이 수상의 취소를 건의했다고 한다.

- ①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은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한 것이겠군.
- ② 방직공의 모습을 거칠고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한 것은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나타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미술 작품을 전통적인 감상 방식으로 감상했던 당대인들은 비참한 당대 사회 현실이 드러나는 이 작품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겠군.
- ④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비극적 모습을 목격한 콜비츠가 자신의 괴로운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대상을 왜곡하여 표현하면서도 원근법을 통해 장면에 입체감을 부여한 것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구현된 것이겠군.

29. 문맥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시각으로 관찰한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대상을 바라보며 느낀 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대상의 고유한 비례와 균형을 찾아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결함을 보완해서라도 대상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한 대상의 모습을 한 작품 안에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문맥을 고려하여 ㉡~㉤을 우리말로 고쳐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잡아내어
- ② ㉢: 아름답게 꾸미지
- ③ ㉣: 특별히 좋아하였다
- ④ ㉤: 넓힘으로써
- ⑤ ㉥: 이끌었던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피가도 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뜬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꼬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1’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확산시키고 있다.
- ② 동일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③ 공간의 대조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32. 윗글을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산을 감고 흘러가는 물줄기의 모습을 제시하자.
- ㄴ. 강변에 여러 가지 풀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자.
- ㄷ. 식물도감을 들고 꽃을 채집하는 학생의 모습을 제시하자.
- ㄹ. 하루 일을 마치고 꺾꺾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모습을 제시하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일반적으로 시에서 ‘끓이지 않고 흐르는 강’은 ‘역사성’, ‘시간의 흐름’, ‘정화’, ‘생명력’, ‘희망’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에서도 시인은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끓이지 않고 흘러가는 섬진강과 그 주변의 자연을 둘러보며 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① ‘개울물들이 끓이지 않고 모여 흐르며’를 통해 끈질기고 강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어.
- ②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에서 비극적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
- ③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에서 부정적 세력을 몰아내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 ④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는 부정적 존재들이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 ⑤ ‘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을 통해 희망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 **아버진 죄를 지었다**다. 아직은 넌 모를 테지만, 그 때문에 아버지는 집을 떠나신 거여. 하지만..... 네 아버지는 눈매가 고운 분이셨다. 우리 마을에서 단 하나뿐인 학생이었고..... 남들이 사람을 해치려는 걸 한사코 말리시려고 했지. 그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여럿이 있어. 정말이여.

그런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께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중략 줄거리]** 군 복무 중이던 ‘나’는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다가, 6·25전쟁 때 죽은 사람의 유골을 발견한다. 누구의 유골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습 현장에 인근 마을의 노인을 불렀다.

“그렇다면 이치도 아마 빨갱이었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이 지휘봉의 뽕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 **유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계가 되물었다.

“어쨌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보기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의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임자 없이 이리저리 뺑개쳐 뒀을라구.”

“그걸 누가 압니까. 그때야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그때였다. 쭈그러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어허, 대관절..... 대관절 그게 어떻다는 얘기로. 죽어서까지 원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자는 말이오. 죽은 사람이 뭇을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쯔쯔.”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뺏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서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 있는 사람이 깨워서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녀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감도록 해야지, 암.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죽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었다. 금방이라도 찢겨 찢겨 췌소리를 낼 듯한 ㉢ **철사 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였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었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였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단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 오고 있는 것이였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였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싸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통하니 ㉠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영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였다.

“암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킁킁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이. ㉡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 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게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 꽃을 지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 3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사건이 과거 회상, 인물의 상상과 중첩되고 있다.
-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서사가 진행될수록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⑤ 차분한 어조를 쓰며 사건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유년 시절에 겪었던 공포로부터 도피하던 공간이다.
- ② ㉡은 ‘나’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이 유골을 옥죄고 있는 것은 전쟁의 참상을 암시한다.
- ④ ㉣을 만드는 행위는 죽은 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⑤ ㉤은 아버지와의 재회를 기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낸다.

## 36. &lt;보기&gt;를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lt; 보 기 &gt;

「아버지의 땅」은 6·25전쟁 때 좌익 활동을 하다 행방불명된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나’가 아버지와 화해에 이르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통하여 6·25 전쟁의 상처와 갈등이 전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버지를 이해하며 화해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전쟁 상처 극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아버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통해 ‘나’도 전쟁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게 된다.
- ② ‘나’가 아버지를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나’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 ③ ‘현기증’이 일어나며 아버지의 환영을 보는 장면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를 암시한다.
- ④ 아버지를 떠올리며 ‘시아가 부엌에 흐려’지는 ‘나’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 극복을 기대하게 한다.
- ⑤ ‘어느 버려진 밭고랑’은 아버지와 화해에 이른 ‘나’가 아버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했음을 보여준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_\_\_\_\_ [A]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_\_\_\_\_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 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 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_\_\_\_\_ [B]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 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 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를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 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_\_\_\_\_ [C]  
 한중 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헝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헝새. \_\_\_\_\_ [D]  
 아춤에 채산(採山)헝고 나조히 조수(釣水)헝새.  
 꺾 꺾여 닌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뱃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淸流)를 굽어보니 셔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_\_\_\_\_ [E]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므이 권 거인고.  
 송간 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 천촌 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넌.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펴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공명(功名)도 날 썩우고 부귀(富貴)도 날 썩우니,  
 청풍 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 단포 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헝넌.  
 아모타, 백년 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헝리.

37.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생애’에 대한 자부심을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수간 모옥’ 주변의 경치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호재로다’에 담긴 고독한 정서를 대조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니웃’들과 풍류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대구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술’로 인한 취흥을 고사(故事)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3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칼로 마름질하거나 붓으로 그려낸 것 같다는 뜻으로 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새 소리가 흥겹게 들린다는 뜻으로 화자의 흥취를 자연물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 향기는 잔에 어리고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 아름다운 마을이 곳곳에 펼쳐 있다는 뜻으로 이상향이 실현된 공간을 그리고 있다.
- ⑤ ㉤: 소박하게 살며 헛된 생각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삶에 대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조선 전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관조를 통해 지극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정극인 역시 자연과 소통하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고자 했다. 즉 일상적 현실에서 벗어나 은일하며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한 것이다. <상춘곡>은 그의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 ① 인간적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자연 속에서 이러한 욕망을 극복하고 있군.
- ② 학문의 정진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치를 깨닫고 있군.
- ③ 자연을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 묘사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고 있군.
- ⑤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화자의 잘못을 성찰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이시백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임경업이 군관으로 수행하게 된다. 마침 그 때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아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한다. 그러나 명나라에 마땅한 장수가 없어 임경업이 청병대장으로 출전하여 가달을 물리쳐 명나라와 호국에 그 이름을 떨친 후에 조선으로 돌아온다.

임경업이 의주부윤으로 도입한 후로 군정을 살피고 사졸(士卒)을 연습하더니, 호장이 경업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압록강에 와 엿보거늘, 경업이 대로하여 토병을 호령하여 일진을 엄살하고,

“되놈을 잡아들이라.”

하고 명하니, 군사가 되놈을 결박하여 들이거늘, 경업이 크게 꾸짖으며

“내 연전에 너희 나라에 가 가달을 쳐 파하고 호국 사직을 보전하였으니, 그 은덕을 마땅히 만세불망(萬世不忘)할 것이어늘,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고 아국을 침범코자 하니, 너희 같은 무리를 죽여 분을 씻을 것이로되 십분 용서하여 돌려보내나니, 빨리 돌아가 본토를 지키고 다시 외람된 뜻을 내지 말라.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으면 편갑(片甲)\*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국을 소멸하리라.”

하고 끌어 내치니, 되놈들이 쥐가 숨듯 돌아가 제 대장과 군졸을 보고 수말을 이르니, 장졸들이 크게 노하여

“임경업이 공교한 말로 아국을 능욕하여 군심(軍心)을 미혹케 하니, 맹세코 경업을 죽여 오늘날 한을 씻으리라.” 하고, 병마 중 정예한 군사를 뽑아 7천을 거느려 압록강에 이르러 강을 사이하고 진세(陣勢)를 베풀고 외치기를,

“조선국 의주부윤 임경업 필부(匹夫)는 어찌 간사한 말로 나의 군심을 요동케 하느냐. 너의 재주가 있거든 나의 철퇴를 대적하고, 불연즉(不然則) 항복하여 죽음을 면하라.”

하거늘, ㉠ 경업이 대로하여 급히 배를 타고 물을 건너 말에 올라 청룡검을 빗겨들고 호진(胡陣)에 달려들어 무인지경같이 좌충우돌하니, 적장의 머리 추풍낙엽같이 떨어지매 적장이 당해내지 못하여 급히 달아날 새, 서로 짓밟히며 물에 빠져 죽은 자가 그 수를 셀 수 없더라.

경업이 필마단창(匹馬單槍)으로 적진을 파하고 본진으로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며 군사를 호쾌\*할 새, 의주 군졸이 일시에 하례하며 즐기는 소리가 진동하더라.

이튿날 새벽에 강변에 가 바라보니, 적군의 주검이 뿔같이 쌓이고 피 흘러 내가 되었는데지라.

이때 적병이 돌아가 호왕을 보고 패한 연유를 고하니, 호왕이 듣고 대로하여 다시 기병하여 원수 갚음을 의논하더라.

경업이 관중에 들어와 승전한 연유를 장계하니, 상이 보시고 크게 기뻐하신 중 후일을 염려하시나, 조신(朝臣)들은 안연 부동하여 국사를 근심하는 이 없으니 가장 한심하더라.

이때 호왕이 경업에게 패한 후로 분기를 참지 못하여, 다시 제장을 모아 의논하여,

“예서 의주가 길이 얼마나 하느냐.”

좌우가 대답하기를,

“열하루 길이니, 한편은 갈 수풀이요 압록강을 격하였사오니, 월강하여 마군(馬軍)으로 대적한즉 수만 군졸이 모여 진을 칠 곳이 없고, 또한 군사가 패한즉 한갓 죽을 따름이니, ㉡ 기이한 계교를 내어 경업을 멀리 피한 후에 군사를 나아감이 좋을까 하나이다.”

호왕이 옳게 여겨 용골대(龍骨大)로 선봉을 삼고 말하기를,

“너는 수만 군을 거느려 가만히 황하수(黃河水)를 건너 동해로 돌아 주야배도(晝夜倍道)하여 가면 조선이 미처 기병치 못할 것이요, 의주서 알지 못할 것이니, 왕도(王都)를 엄습하면 어찌 항복받기를 근심하며, 대사를 성공하면 경업을 사로잡지 못하리오.”

용골대가 청령하고 군마를 아침 일찍 출발할 새, 호왕께 하직하니, 호왕 왈,

“그대 이번에 가매 반드시 조선을 항복받아 나의 위엄을 빛내고 대공을 세워 수이 반사\*함을 바라노라.”

용골대가 청령하고 승선발행(乘船發行)하니라.

경업이 호병을 파한 후에 사졸을 조련하여 군기를 보수하고 성첩을 수축하여 후일을 방비하되, 조정에서는 호병

을 과한 후에 의기양양하여 태평가를 부르고 대비함이 없더니, 국운이 불행하여 의외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당한 지라.

철갑 입은 오랑캐 동대문으로 물 밀듯이 들어와 ㉠ 백성을 살해하고 성중을 노략하니 도성 인민이 물 끓듯 곡성이 진동하며, 부모 형제 부부 노소가 서로 실신하여 살기를 도모하니, 그 형상이 참혹하더라.

이런 망극한 때를 당하여 조정에 막을 사람이 없고, 종사의 위태함이 경각 사이에 있는지라. ㉡ 상이 망극하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하실 새, 급히 가마를 타고 강변에 이르사 배를 타시매, 백성들이 뱃전을 잡고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무수하니, 그 형상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왕대비와 세자 삼형제는 강화로 가시고, 남은 백성은 호적에게 어육(魚肉)이 되니라.

도원수 김자점은 이런 난세를 당하였으되 한 계교를 베풀지 못하고, 용골대는 백성의 집을 헐어 뗏목을 만들어 강화로 들어가더라. ㉢ 강화유수 김경징(金慶徵)은 좋은 군기를 고중(庫中)에 넣어두고 술만 먹고 누웠으니, 도적이 스스로 들어가 왕대비와 세자·대군을 잡아다가 송파(松坡) 벌에 유진(留陣)하고, 세자·대군을 구류하고 외치기를,

㉣ “수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대비와 세자·대군이 무사치 못하리라.”  
하는 소리 천지진동하더라.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편갑(片甲) : 싸움에 지고 난 군사를 비유한 말.

\* 호궤(稿饋) : 음식을 베풀어 군사를 위로함.

\* 반사(班師) : 군사를 이끌고 돌아옴.

#### 4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사 전개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③ 상황 변화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통해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면을 부각시켜 해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1. 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한산성을 포위하여 항복시킨다.
- ② 의주를 우회하여 왕도를 급습한다.
- ③ 임경업을 속임수로 유인하여 제거한다.
- ④ 압록강을 월강하여 마군으로 대적한다.
- ⑤ 염탐꾼을 보내 임경업의 허실을 파악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㉑~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병자호란은 조선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 태종이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하여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쫓겼다가 항복하고 굴욕적인 화약(和約)을 맺었던 사건이다. 병자호란 때 임경업은 중국 명나라와 합세하여 청나라를 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자점의 모함으로 죽었다. 「임장군전」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허구적 내용을 가미한 소설이다. 작품의 주제는 임경업에 대한 영웅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굴욕적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 조정 관료에 대한 비판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 ① ㉑은 주인공의 용맹함을 부각시켜 영웅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② ㉒은 독자들에게 청나라의 만행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겠군.
- ③ ㉓은 병자호란 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㉔은 외침에 대처하지 못한 지배층의 잘못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㉔은 굴욕적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골동집 출입을 경원한 내가 근간에는 학교 다니는 길 옆에 꽤 진실성 있는 상인 하나가 가게를 차리고 있기로, 가다오다 심심하면 들러서 한참씩 한담(閑談)을 하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누룩한 두꺼비 한 놈을 내놓으면서 ㉠ “꽤 재미나게 됐지요.” 한다.

황갈색으로 검누른 유약을 내려 썩은 두꺼비 연적(硯滴)인데, 연적으로서는 희한한 놈이다.

4, 50 년래로 만든 사기(砂器)로서 흔히 부엌에서 고추장, 간장, 기름 항아리로 쓰는 그릇 중에 이따위 검누른 유약을 바른 사기를 보았을 뿐, 연적으로서 만든 이 종류의 사기는 초대면이다.

두꺼비로 치고 만든 모양이나 완전한 두꺼비도 아니요, 또 개구리는 물론 아니다.

특 튀어나온 눈깔과 딱 버티고 앉은 사지(四肢)며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그리고 그 입은 바보처럼 ‘헤—’ 하는 표정으로 벌린 데다가 입 속에는 파리도 아니요 벌레도 아닌 무언지 알지 못할 구멍 뚫린 물건을 물렸다.

콧구멍은 금방이라도 벌름벌름할 것처럼 못나게 뚫어졌고, 등허리는 꿈무늬에 이르기까지 석 줄로 두드러기가 솟은 듯 쪽 내려 얹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약을 갖은 재주를 다 부려 가면서 얼룩얼룩하게 내려 부었는데, 그것도 가슴 편에는 다소 희멀끔한 효과를 내게 해서 구석구석이 교(巧)하다느니보다 못난 놈의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이 한층 더 사랑스럽다.

요즈음 골동가들이 본다면 거저 준대도 안 가져갈 민속품이다. 그러나 ㉡ 나는 값을 물을 것도 없이 덮어놓고 사기로 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이 날 밤에 우리 내외간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쌀 한 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는 아내의 바가지다.

이런 종류의 말다툼이 우리 집에는 한두 번이 아닌지라 종래는 내가 또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갚아 줄 테니 걱정 마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한 연유로 나는 이 잡문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잠꼬대 같은 이 한 편의 글 값이 행여 두꺼비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네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퍼할 것이다.

너는 어째 그러도 못 생겼느냐. 눈알은 왜 저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은 왜 그리 넓으며 입은 무얼 하자고 그러도 컸느냐. 웃을 듯 울 듯한 네 표정! 곧 무슨 말이나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가장 호사스럽게 치레를 한다고 네 놈은 얼쑹덜쑹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 ㉢ 흡사히 시골 색시가 능라주속(綾羅紬屬)\*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만 보인다.

앞으로 앉히고 보아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모로 앉히고 보아도 그대로 못나고 어리석고 멍텅하기만 하구나. 내 방에 전등이 휘황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더 못나게만 보이니 누가 너를 일부러 심사를 부려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말이나.

㉣ 네 입에 문 것은 그게 또 무어냐. 필시 장난꾼 아이 녀석들이 던져 준 것을 파리인 줄 속아서 받아 물었으리라. 그러나 뺨에 버틸 줄도 모르고, 준 대로 물린 대로 엉겨주춤 앉아서 울 것처럼 웃을 것처럼 도무지 네 심정을 알 길이 없구나.

㉤ 너를 만들어서 무슨 인연으로 나에게 보내주었는지 너의 주인이 보고 싶다.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잘 안다.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 하는 호인(好人)일 것이리라.

그리고 너의 주인도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리라.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못생긴 눈, 그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뚱어리들을 보고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

나는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의 고독함은 너 같은 성격이 아니고서는 위로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두꺼비는 밤마다 내 문갑 위에서 혼자 잔다. 나는 가끔 자다 말고 버쩍 불을 켜고, 나의 사랑하는 멧덩구리 같은 두꺼비가 그 큰 눈을 희멀건히 뜨고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가를 살핀 뒤에야 다시 눈을 붙이는 것이 일쑤다.

- 김용준,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

\* 능라주속(綾羅紬屬) : 비단을 일컫는 말.

\* 멍텅하다 : ‘멍청하다’의 비표준어.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열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 ㄴ.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 ㄷ. 대상을 익살스럽게 묘사하여 친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ㄹ. 직설적 표현으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neg, \sqsupset$   
④  $\sqsubset, \sqsubset$                       ⑤  $\sqsubset, \sqsupset$

44. 윗글의 글쓴이가 질문에 답을 한다고 가정할 때, 대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두꺼비 연적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답 : 별 희한한 연적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①

문 : 두꺼비 연적을 산 일 때문에 아내 분과 다투셨다면서요?

↳ **답:** 가난한 형편에 연적을 샀으니 아내가 화낼 만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 ②

문 : 두꺼비 연적의 모습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좋았나요?

↳ **답:** 바로 두꺼비의 표정과 자세입니다. 웃을 듯 울 듯한 묘한 표정과 얹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닌 자세를 보니 어리석고 못나 보였으나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 ③

문 : 그 두꺼비 연적을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 **답:** 아마 전형적인 조선 사람일 거예요. 겉모습은 세련되지 않아도, 영악하지 않은 성품의 소유자일 겁니다. .... ④

문 : 선생님에게 두꺼비 연적은 어떤 존재인가요?

↳ **답:**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꺼비 연적을 고독한 제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 ⑤

4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골동집 주인은 ‘나’에게 흥미 있는 사건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② ㉡: ‘나’는 언젠가 두꺼비 연적이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 ③ ㉢: ‘나’는 두꺼비 연적의 외양이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 ‘나’는 ‘너의 주인’이 두꺼비 연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순간을 상상하고 있다.
- ⑤ ㉤: ‘나’는 ‘너의 주인’이 의도적으로 두꺼비 연적을 ‘나’에게 보냈다고 확신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공 란

공 란